

전북지부 단사별 소식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지난 5월 20일(월) 13시부터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상반기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다.

1000여명의 군산공장 전체 조합원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금속노조에서 제작한 정세관련 시청각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지엠군산공장 사태로 보는 타타대우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지엠군산공장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였던 군산대 김현철 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현재 타타대우상용차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사측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노사가 함께 극복해 보자는 취지로 특별노사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라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체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대화해보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 우재완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해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 자신한다. 지금의 현실이 어둡더라도 지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을 만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전체 조합원이 지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 손성원교선부장 -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는 최근 마바산업이 CCTV로 조합원을 감시하다 들 통 난 사건이 있었다. 마바산업의 공장 밖 외부사무실에는 약 10개의 CCTV가 있다. 문제는 내부를 촬영 하는 CCTV들이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곳만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비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인 다른 2곳의 사무실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 조합원의 경우, 근무하는 책상의 위치가 구대표

의 지시에 의해 CCTV 근처로 강제 배치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CCTV운영에 대해 노조원들이 항의하자, 마바산업은 자기들이 설치하

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인 동양쓰리축에서 도난방지나 화재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회사는 CCTV를 보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동양쓰리축의 대표와 통화해본 결과, 사실은 구효정 대표(마바산업 대표)가 직원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여 명목상 동양쓰리축의 직원을 CCTV관리자로 하자고 부탁했으며 실제로 CCTV를 관리하고 지켜보는 것은 마바산업이라고 했다. 마바산업은 이러한 불법적인 CCTV 감시뿐 아니라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징계와 편파적인 불이익처분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감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사관이 조만간 점검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금속법률원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원청인 현대차와 교섭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소속 하청업체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 한순간이라도 노동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투쟁에 힘쓰고 있다.

- 김광수 교선차장 -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는 전북지노위에서 쟁의조정 종료가 결정됨에 따라 14일 자정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2차에 걸친 지리멸렬한 조정회의 끝에 전북지노위에서 조정이 중지됐다. 지회는 사측의 전향된 입장을 기다리며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조정회의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임했다. 결국 지노위의 사용자위원 마저도 사측의 아집과 답답한 태도에 질려버려 조정 중지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9차교섭에서 내놓은 제시안에서 모든 조항에 대하여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10차교섭에서는 80여개의 조항을 임의대로 삭제하고 사측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여 제시안을 내놓았다. 지회는 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뻔뻔하게 조정회의에서도 노측의 요구가 너무 수준이 높

다느니, 현대그린푸드에서 전주지점만큼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주는 곳이 없다느니 하는 없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사측의 태도에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조합원이 똘똘뭉쳐 현장탄압을 자행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려 하지 않는 사측의 입장을 박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수십년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도, 앞으로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한 보상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현장을 바꾸고 우리의 요구를 기필코 쟁취하자. 우리가 가진 무기는 총단결, 총투쟁 뿐이다.

- 이미현 교선부장 -

노조할 권리 쟁취! 임단협 쟁취!
전 조합원 총단결로 임단투 승리하자!

현대모비스호남물류지회는 2018년 12월 창립총회를 걸쳐 노동조합을 선포했다. 현재 2018년 단체교섭과 2019년 임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5월 21일(화), 5월 22일(수) 이틀에 걸쳐 10차, 11차 교섭을 진행했다. 10차 교섭에서 사측은 4차 제시안을 제출하였으나 지회의 요구안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가져왔다. 미진한 사측의 제시안에 노동조합은 현재 누적 69.5시간의 강력한 파업투쟁을 전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였다.

지회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통크게 결단하고 핵심요구안을 비롯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지회 측의 수정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사측 대표이사는 10차 교섭 모두 발언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제시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교섭위원들을 밤 9시까지 기다리게 하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회 교섭단이 대표이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똥개들인가? 곧바로 지회 교섭위원은 대표이사에게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교섭에 임한다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11차 교섭에서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다. 5월 22일(수) 개최한 11차 교섭에서 사측은 5차 제시안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조합원들



을 기만하는 내용이어서 지회는 강하게 유감을 표하였고, 일말의 기대감으로 시작한 사측과의 실무교섭은 절망으로 끝났다. 지회는 노조가 없을 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요구를 들고 싸움에 나서고 있다. 노동환경이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기는 조직이다. 파업 69.5시간! 우리는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 이현준 교선부장 -